나주시 AI 기반 스마트농업 전환 속도

농업기술센터 업무계획 보고회
데이터 결합해 미래 농업 육성
농업 신기술 보급 등 과제 추진

나주시농업기술센터가 지난 5일 농업인교육관에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농촌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토론 방식으로 진행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2026년을 'AI 기반 스마트농업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데이터와 기술을 결합한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나주시는 최근 농업기술센터 소장, 과장, 팀장, 읍면 상담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선언했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총 1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스마트농업 기반 확충과 농가 소득 증대, 미래 농업을 뒷받침할 중장기적인 농업 기반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회는 기존의 형식적인 보고를 벗어나 농촌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문제 해결형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센터는 'AI 융합으로 더 커가는 농업기술 혁신, 함께 행복한 농촌'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AI 기반 농업기술 보급, 미래 전문 인력 양성, 기후변화 대응, 치유농업 활성화 등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농업기술 지도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핵심 과제로 삼고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생성형 AI 서비스 '이삭이'를 농업인 상담에 도입해 데이터 기반 과학영농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도직 공무원을 데이터 컨설턴트형 전문 인력으로 육성해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인다.

이를 위해 14개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디지털 영농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상담소장의 AI 활용 역량 강화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농촌 인력난 해소와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신규 시책도 눈길을 끌었는데 드론 등 첨단 장비를 갖춘 청년 농업인이 취약계층 농가의 병해충을 무상 방제하는 '청년 스마트 영농대행단'과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수리 및 안전교육'은 현장 밀착형 정책으로 높은 공감을 얻었다.

이와 함께 나주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여름철 폭염에 대응한 '시설원예 온도 저감 기술 보급' 등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기술 대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형남열 나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026년은 AI 기술을 농업 현장에 본격 접목하고 기후 위기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계획들이 책상 위에 머무르지 않고 농업인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올해 800억원 규모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10% 선할인 혜택 유지

화순군이 올해 800억원 규모의 '화순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나선다.

상품권의 안정적인 판매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10% 선할인 혜택을 유지하고, 10%를 초과하는 추가 할인의 경우에는 결제 시 적립되는 캐시백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월 한 달간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2% 캐시백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화순군은 지난해 1000억원 규모의 화순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소비 유입이 확대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군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발행 규모와 혜택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체감도 높은 경제 활성화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용희 화순군 지역경제과장은 "안정적인 상품권 할인판매 지원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강진군 세액공제 확대 고향사랑기부 유치 박차

지역관광 연계 등 답례품 강화

강진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 유치를 한층 확대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변화는 세액공제 구간 확대로 기부자의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됐다.

강진 특산물인 호평쌀, 한우, 전복, 농특산물 세트 등은 이미 다른 지역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역 관광과 연계한 체험형·체류형 답례품 구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은 강진청자축제,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등 지역 고유 콘텐츠와 결합한 기부 프로그램은 강진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명절과 축제 기간에는 테마형 기부 캠페인 등을 통해 기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벤트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강진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검색해 온라인 플랫폼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농협·국민·기업·신한·하나은행 모바일 앱이나 전국 농협 창구를 방문해 대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강진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과 기부자가 가치를 나누는 상생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며 "더 많은 국민이 고향 강진을 기억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2025년 대한민국 국향대전 축제장 전경.

함평 '국향대전' 3년 연속 '축제 콘텐츠 대상' 축제부문 대상 수상

콘텐츠 경쟁력·친환경 운영 등 평가

함평의 대표 축제인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3년 연속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축제 부문 대상을 받았다.

함평군은 국향대전이 제14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축제 관광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축제 콘텐츠 대상은 축제 운영 성과, 콘텐츠 경쟁력, 지역사회 기여도, 친환경 축제 운영 등 항목을 종합 평가해 시상한다.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자체 개발한 23종의 국화 육종을 활용해 '마법의 국향랜드' 주제에 맞는 국화 조형물을 전시한 점을 인정받아 축제 관광 부문 대상을 받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이로써 국향대전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축제 콘텐츠 대상 축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축제 분야 전문가들이 주는 상을 3년 연속 수상해 영광"이라며 "국향대전이 더 많은 관광객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축제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축제 콘텐츠 대상 시상식은 다음 달 24일 서울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담양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대상자 모집

2월 11일까지 온라인 신청
연 1.5% 금리 최대 5억 지원

담양군이 오는 2월11일까지 '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과 농업경영인을 발굴해 일정 기간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예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영농교육을 이수하고 영농창업을 계획하거나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미래 농업 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인재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 49세 미만(1976~2008년도 출생자)으로 영농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농업인이다. 또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올해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경우 군 복무를 완료한 이후에 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농업e지' 홈페이지(nongupez.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마감일은 2월 11일 오후 6시 정각이다. 이후에는 신규 신청뿐 아니라 수정·삭제가 불가능하다.

사업 대상자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 및 조건 등을 검토한 뒤 담양군에서 배정 인원의 1.5배수를 전라남도로 추천하게 된다. 이후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전문 평가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최종 대상자를 선종한다.

최종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세대당 최대 5억원 한도 내 농업 창업자금이 지원되며, 연 1.5% 고정금리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가 제공된다. 영농 경영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 참여 기회도 주어진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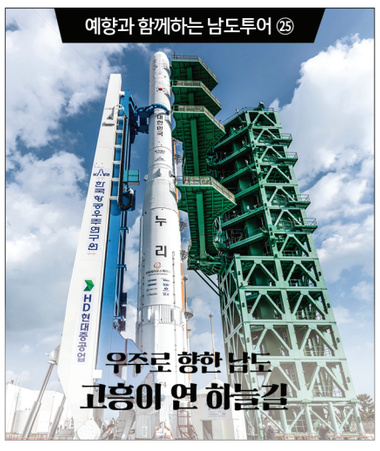
예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6년 1월호

2025년 12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문화 화제
전라도와 낭트의 교류 이끄는
광주 출신 거문고 연구자 이정주씨

복합문화공간, 도시 미래가 되다⑤
대구 오페라하우스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와
'오페라 페스타' 성공 주역

호남의 누정시즌2⑦-장성 백화정
대학자 김인후의
학문과 충절,
백화로 피어난 정자



공간의 재발견⑦
옛 교도소를
문화적 상상력으로
리모델링하다
장흥 빠삐용 Zip

조인호의 키워드로 읽는 광주 전남 미술사⑦
화폭에 담은 남도정서
오지호·임직순의 감흥회화